



# 우리 학습 담당위원

허진우

## 웃을가, 울가?

멤멤멤, 녹아내릴듯 한 삼복의 무더위를 피해 매미들이 키높은 나무그늘에 늘어붙어 귀따깝게 노래하는 7월입니다. 더위에 지쳐 아지를 내려뜨린 나무들이 기특하게도 학교 운동장에 짹짹 내려쬐이는 땀별을 시원한 그늘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부채질을 하며 창밖을 내다보는 내 얼굴로는 콩알같은 땀방울이 때구루루— 굴러내립니다.

(앵이, 절벽같은거—)

눈먼 욕을 먹고있는 애는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직심스레 영어교과서를 들여다보는 우리 학급의 유명한 이악쟁이이며 학습담당위원인 지연동무였습니다.

송글송글 땀방울이 돋은 오탁한 코잔등우로 안경을 추슬러올리는 지연동무의 모습은 내 마음을 가마속의 꿩는 물마냥 확확— 열기를 풍기며 소용돌이치게 합니다.

어제 있던 일때문입니다.

시험칠 때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게 어리석은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실 나는 수학, 물리는 물론이고 영어에서도 그 무엇이든 모두 딱소리나게 준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학기를 마감짓는 학과경연에 영어발음을 적는 똥판지같은 문제가 나올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모두가 입 모아 칭찬하는 박사골만 믿고 빈둥거리다가 시험기간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돌격공부를 해 성적을 올리곤 하였으니...

그래서 영어시험이 끝날즈음해 좀 맞추어

보자고 옆에 앉은 지연동무에게 《SOS》 신호를 보냈더랬는데 웬걸, 단순히 거절만 당한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바람으로 평상시에도 시험기간처럼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땅 땅 굳은 5점 맞을게 아니냐고 따끔한 충고까지 받았던것입니다.

정통을 찌른 충고였으나 어처구니없게도 고한문제때문에 만점 맞기는 코집이 틀린 나로서는 그가 더욱 고깝게만 생각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내 맘을 식혀주려는듯 파란 달린옷을 입은 담임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교실문을 열고 들어서시였습니다.

우리 학급 총점이 학년적으로 세손가락안에 든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1등인지도 모릅니다.

아닐세라 서둘러 자리를 정돈한 우리에게 선생님은 우리 학급이 학년의 8개 학급중에 단연 1등을 했다고 기쁨에 넘쳐 알려주시였습니다.

언제나 듣기 좋은 증음으로 학년적인 종합등수와 과목별 개인별성적을 불러주시는데 나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한데 어울린 한숨을 푹— 내쉬였습니다.

학년적으로 내가, 바로 이 진국이가 2등한것입니다. 지연동무는 1등을 하고 말입니다.

(에— 2등이면 체면은 차릴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너자애한테, 그것도 지연이한테 뒤질건 뭐람...)

허나 2등이면 어떻습니까. 학년의 수백명 아이들중에 2등이면 그래도 팬찮다고 자신

을 위안한 나는 생각을 돌려 이제 곧 시작될 즐거운 여름방학을 그려보았습니다.

방학, 얼마나 기다리던 방학입니까.

더더구나 래일은 새롭게 전변된 농촌도시 장천에서 사는 삼촌의 생일입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풍력발전기를 만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삼촌이었습니다.

내 눈앞엔 바람을 안고 썩썩—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와 말로만 들어온 지열난방체계며 태양열온실, 궁전처럼 황홀한 멋진 새집들이 펼쳐졌습니다.

《진국학생.》

《예—엣!》

선생님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난 나는 아차— 하고 혀를 깨물었습니다. 허나 벌써 때는 늦었습니다.

《하하하—》

은 교실이 떠나갈듯 한 동무들의 웃음소리에 내 얼굴은 불판에 오른 가재처럼 빨갱게 익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방학기간 학습반명단을 불러주고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것은 글썩 내가 지연동무의 학습반에 속해있는것이었습니다.

절벽같은 그 동무에게 잡혀 공부만 하면서 달달 볶여야 할 지루한 방학이 벌써부터 내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갔습니다.

게다가 지연이쪽을 힐끔 바라보니 그의 수첩에 적힌 학습반명단에서 내 이름은 빨간 네모칸속에 갇혀있었습니다. 내 눈길은 점점 커지는듯싶은 그 네모칸으로 향했습니다.

꼭 내가 지연동무의 그 네모칸 함정속에 끌려들어가는듯싶었습니다.

방학은 시작됐건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총 돌

앞에는 푸른 벼바다가 넘실대고 산기슭에는 하이얀 문화주택들이 아담하게 들어앉은 우리 마을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꼬끼요— 꼬끼요—

목청좋은 수탉의 기상나팔소리가 집집마다에서 울려나오고 농사일에 부지런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들에 나가기 전에 터밭에 물도 주고 복도 돌구어줍니다. 엇그제만 해

도 새벽공부를 한다고 분주스럽던 우리 집에 정적이 깃들었습니다.

복슬강아지가 이상한듯 콩당콩당 모두발 뛰기를 하며 방문에 매달렸으나 나는 삼촌네 집에 갈 차비를 하는 할머니의 일손만 부지런히 도와드렸습니다. 닭알말이며 팔고물을 듬뿍 묻힌 찰떡을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가는데 《진국아—》 하는 청높은 부름소리와 함께 고수머리 용수의 넉죽한 얼굴이 불쑥 방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진국아, 뭘 하니? 빨리 가자마—》

소문난 장난꾸러기이면서도 한번 늘어붙으면 끝장을 보는 용수의 기질을 잘 아는 나는 서둘러 책가방을 썼습니다.

《용수야, 벌써 학습반 갈 시간이니? 난 또 네가 개미친구나 개구리동무들과 〈학습반〉 하는줄 알았지.》

자기의 학습자세를 우스개로 조롱하는 내 말이 듣기 싫은지 용수가 《저기 지연동무가 벌써 가는구나.》 하고는 비위중계도 찰떡 하나를 냉큼 입에 집어넣으며 마당을 나섰습니다.

(지연이? 행—)

꼬리를 저으며 반기기만 하던 복슬이의 멍멍멍— 원망소리를 뒤에 남기고 학습반실로 향하는 내 눈앞엔 빨간 원주필로 그려놓은 지연동무의 네모칸함정이 언뜻 비껴들었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지연동무는 시작부터 나를 자기의 네모칸함정속에 깊숙이 끌고들어가는것이었습니다.

아침 첫시간에 제껴 방학숙제를 해제끼고 삼촌의 집으로 신나게 가려던 나의 계획이 지연동무의 절벽에 부딪쳐 산산조각나고말았습니다.

《진국동무, 복수형발음이 왜 그렇니? 그리구 특수물음문은 용수동무가 한것처럼 마감에 억양이 내려가야 해.》

다섯번째 되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키득키득— 동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래저래 창피한 일이 겹쳐 겨우 참는데 지연이의 《저울》은 고장났는지 나를 용수나 철호보다도 더 낮추 달구는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한 최우등생이던 이진국의 실력이 그 애의 뽀족침에 바람새는 풍선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삼촌의 생일에 갈 생각만 하고있어서가 아닌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공부한 본문들인데 지연이의 요구성은 점점 높아져 이제는 나를 외국어방송원으로 양성할 모양입니다.

용수는 벌써 지루해났는지 철호의 목덜미에 개미들을 락하시키고는 좋아라 깔깔댁니다.

그통에 모두 개미를 꺼낸다고 철호의 옷자락을 들추며 야단이였지만 그럴수록 내 가슴속엔 재만 가득 들어차는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도 참, 오늘같이 바쁜 날에 딱 이렇게 놀건 뭐란 말입니까?

안타깝게 시간은 빨리도 흘러가는데 지연이는 그런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도수를 높이는게 나를 막 놀리는것만 같았습니다.

분기가 육- 치밀어올랐으나 그것을 꼭- 누르며 나는 지연이에게 사정하다싶이 말했습니다.

《지연동무, 미안한데 나 이걸 후에 검열받을게, 응? 오늘 나 무척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러나 절벽은 역시 절벽입니다. 양보나 리해도 없이 뛰어가기라도 하려는 나를 기어 붙잡고 딱 막아섭니다.

《아니, 진국동무, 그렇게 미루다가 래일 숙제는 또 어찌구? 안돼, 이번 시험을 벌써 잊었니?》

말문이 막힌 나는 수도물 흐르듯 영어본문을 쭈루룩- 다시 외웠지만 지연동무의 불합격타령은 그칠줄 몰랐습니다.

초가 가고 분이 가고 할머니가 신신당부하던 차시간이 획- 지나가버렸습니다.

더더욱 조급해져 얼음우에 박밀듯이 쪽- 쪽 내리쬐던 내 눈에 창문너머로 빠스가, 분명히 할머니가 랐을 파란 빠스가 달려가는 것이 확- 안겨왔습니다.

(아이쿠, 끝내-)

순간에 이마살이 찌프러지고 또다시 불합격을 선언하는 지연동무의 목소리는 아득히 멀어져갔습니다.

턱을 잔뜩 쳐들고 자꾸 안타까운듯 조그마한 코망울을 벌름거리며 지연이의 얼굴만이 달리는 빠스대신 눈앞에 육박해왔습

니다.

심사가 잔뜩 뒤틀려졌으나 그렇다고 녀자와 정면으로 해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씩씩거리던 나는 곁에서 아직도 장난질하는 용수를 붙잡고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여, 용수, 우리 학습담당위원 꽤나 세다야. 선생님보다 더 하다야. 이거 방학내내 마주앉아있으려면 산소통 하나를 지고 다녀야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것 같다야.》

용수가 뭐라 맞장구를 치기도 전에 나는 지연이에게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여, 지연동무, 동무 1등을 했으면 했지 뭘 그다지 뽀뽀하게 그래? 1등과 2등의 차이를 이렇게 시위하자는거야? 너무하다야.》

가뜩이나 큰 눈을 부라리며 말끝마다 《다야》를 달며 비양대는 내 말에서 아마 도끼날이라도 번뜩 했나 봅니다.

조각상마냥 서서히 굳어지던 지연이의 눈가에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더니 《진국동무, 그럼 내가... 동문 정말...》 하고 눈물 섞인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이어 그는 동무들이 말릴 새도 없이 얼굴을 싸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마 녀자애들이란 센척 하다가도 좀 어찌면 나약해지나 봅니다.

설화랑 녀동무들이 우르르 따라나가더니 지연이를 대신하여 나에게 고사총련발사격을 퍼부어댁니다.

《에- 남자라는데 쩌쩌하게 뭐야-》

《흥, 다 저를 위해 그러는건데-》

《애, 다신 상대하지 말자!》

《정말 시시하구나.》

용수랑 철호까지 점잖게 지연동무 역성을 들었습니다.

《진국이, 이왕 잘하던거 좀더 잘하지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 남자답게 시원스레 용서를 빌어.》

...

그러나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겐 잘못이 있는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중공격은 나에게로 쏠리고있

었습니다. 책이 손에 잡히지도, 눈에 들어 오지도 않았습니니다. 나는 끝내 가방을 들고 학습반을 나와서 집으로 뜨적뜨적 걸어 갔습니니다.

## 보은통

그날부터 나는 지연동무와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 학습반에도 며칠째 나가 지 않았습니니다. 전화가 자주 오고 동무들도 찾아왔지만 아프다고 뺨대면서 집에 들어박혀 숙제만 해제했습니니다.

딱친구인 용수가 여러번 충고해주었으나 나는 마음을 돌려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니다. 때로 내가 왜 이리 좁상스러울가 코웃음도 냈지만 자존심이 상해 견딜수가 없었습니니다.

글쎄 용수나 철호라면 몰라도 명색이 최우등생이고 학년적으로 2등인 내가 왜 이렇게 구박을 받고 한심한 애로 몰리운단 말입니까.

물론 요구성이 높은건 좋은 일입니니다. 그러나 신나고 멋지게 놀기도 해야 할 방학기간에도 선생님이나 된듯 과제를 뽁뽁하게 받아내니 차라리 이럴 땐 피하는게 상책이 아니겠습니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에 오랜만에 나갔던 김에 다른 반 아이들과 축구경기를 벌려놓고 운동장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던 나는 그만에야 발목을 곱질렀습니니다.

크게 상하지도 않았는데 담임선생님은 리인민병원으로 업고가서 압박봉대를 감아주시었습니니다. 집에 가서 꼭 얼음찜질을 해야 한다, 나다니지 말고 다 나을 때까지 꼭 안정해야 한다고 선생님은 다심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높다랗게 쌓아놓은 이불 위에 발을 올려놓고 얼음찜질을 계속하는데 웬일인지 그때 선생님이 하시던 말쑤이 새록새록 되새겨지는게 아니겠습니니다.

《진국인 다 좋은데 고집이 지나쳐요. 지연동무가 그렇게도 고까운가요? 지연이랑 설화랑 동무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그러는데 빨난 황소처럼 울퉁거려서야 되겠나요? 학습목표를 높이 세우고 아글타글 애쓰는 학

습담당위원동무를 잘 도와나서야지요.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진국이도 꼭 1등을 해야 해요.》

언제나 귀에 쫄쫄 들어오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웅이진 내 마음을 얼마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발목에 갖다댄 얼음처럼 지연이가 차고 딱딱하다는거야 사실이 아님니까.

그래도 나는 더 누워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기보담 동무들과 함께 영어회화를 하나라도 더 외우고 수학문제도 더 풀고싶었습니다.

절룩거리면서라도 학습반에 갈 준비를 하는데 《진국동무 있니?》 하며 지연이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흰 보자기에 보은통을 싸들고 말입니니다.

나는 얼른 자리에 누워 발목에 얼음주머니를 올려놓았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방안에 들어서는 그와 눈길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지연이가 보은통안에서 더운 김이 문문 나는 뜨끈뜨끈한 물주머니를 꺼낼 때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땡— 해제습니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얼음보숭이가 들어있을 보은통에 뜨거운 물주머니가 그것도 여러개 들어있었으니 말입니니다.

《진국동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얼음찜질을 한 다음엔 더운물찜질을 해야 한다. 그래야 부은게 빨리 가라앉는데. 나 때문에 요전날 삼촌네 집에 못 갔다는데 정





말 미안해. 난 동무가 삼촌생일에 갔다 오려  
는것두 모르구... 자, 어서 째질하자마.»

나는 놀라다못해 당황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얼음덩이 아니, 바위돌처  
럼 차고 딱딱하다고 여겨온 이 절벽의 마음  
이 이렇게 착하고 뜨거울줄이야 어이 알았  
겠습니까.

다행히 어머니가 집에 들어서시는 바람  
에 나는 웅색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었습  
니다.

나는 꿀떡은 병어리마냥 어머니와 지연이  
에게 포로되어 더운 땀을 뚝뚝 흘리며 발  
목에 뜨끈뜨끈한 물주머니를 올려놓고말았  
습니다.

8월의 후더운 바람이 하얀 창가림을 살랑  
이며 방안으로 불어들었습니다.

### 우리 학습담당위원

논두렁에서는 더위에 혈떡이는 개구리들이  
짹바당거리며 물끓을 따라 뛰어다닙니다.

이제는 키가 내 무릎을 훨씬 넘게 실히  
자란 벼포기들이 푸른 주단을 펼치며 설레  
입니다.

아침일찍 마당까지 말끔히 청소한 나는  
기분 좋게 코노래를 부르며 학습반실로 갔  
습니다.

《진국아, 너 이젠 다 나안? 정말 아프  
지 않아?》

용수가 한달음에 마주 나옵니다.

《응, 그래. 다 나왔다. 잘들 있었니? 그  
런데 지연동문 아직 안 나왔니?》

《오- 좀 늦어진다고 했어.》

내 발목을 이리저리 주물러보며 용수도  
철호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학습반실 책상우에 있는 꽤 두툼한 풀색  
뚜껑의 낫선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엉, 〈영어일상회화〉? 이걸 무슨 책  
이가?》

《그거? 그건 지연이가 보는건데 대학생  
용 참고서갈애.》

용수가 제껴 대답해주었습니다.

《뭘, 대학생용?》

어안이 병병해진 나에게 용수는 빠기듯  
말했습니다.

《진국아, 너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아  
니? 이걸 좀 봐-》

놀랍게도 그 애가 보여준것은 《올림픽  
수학의 첫걸음》이라는 참고서였습니다. 한  
다 하는 1중학교 학생들이 쓴다는 참고서였  
습니다.

《진국아, 우리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다같이 1등을 하자는거  
야.》

(뭘, 모두가 1등?)

나는 마치 판세상에 온것만 같았습니다.

내앞에 있는 이 교수머리가 과연 용수란  
말입니까? 개구리며 개미들과 장난질할 궁  
리밖에 없던 머리로 올림픽수학문제를 풀고  
언제봐야 우등이나 겨우 하던 애가 이제는  
1등자리까지 노리고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머리만 믿고 1학기 학과경연에서 2등  
한것으로 자체만족에 빠져있을 때 지연이는  
자기 공부는 물론이고 용수며 다른 애들까  
지 모두 5점, 만점만 아니라 1등을 목표로  
공부하도록 이끌었던것입니다.

바로 그때 지연이가 커다란 지함을 안고  
학습반실에 들어섰습니다.

《동무들, 진국동무 삼촌한테서 소포가  
왔어.》

그는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국동무, 이젠 다 나왔니? 이거 장천  
에서 동무 삼촌이 보낸거야. 뭘이 있나 어  
서 보자.》

보나마나 참고서나 가득 들어있으리라 짐  
작했던 그 지함안에서 바람개비며 전동기  
같은것들이 나왔습니다. 선풍기를 분해한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습니다.

《진국동무, 실은 내가 동무 삼촌께 편지  
했댔어. 나때문에 생일에랑 못 가고 장천농  
장구경도 못하게 되었다구. 그랬더니 공부  
를 잘해 진짜 최우등생이 되고 1등 하는것  
이 제일 큰 자랑거리라면서 우릴 보고 제 손  
으로 풍력발전기를 만들어보라구 이렇게 부  
속품들을 보내주셨어. 동무 삼촌은 참 훌륭  
한분이야.》

모두가 바람개비며 전동기를 난생처음 보  
듯이 신기하게 만져보며 중구난방으로 떠들  
었습니다.

《역시 장천에서 사는 사람이 다르다야!》

《진국이 삼촌 정말 멋있는데-》

《히야, 장난꾸러기 용수의 입이 저러다  
찢어지겠다-》

《흥, 내 이제 우리 마을에 풍력발전소를 보란듯이 세울테야! 그때 가서 너희들 이 장용수의 이름을 부르며 손뼉에 맞구멍이 뚫려질걸...》

《하하하.》

그속에서도 지연이의 여무진 말소리가 내 귀전을 뒹 - 울리었습니다.

《웁아.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밭을 불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니? 우리두 진국동무 삼촌처럼 하나를 배우고 써먹어도 우리 조선을 위하고 또 세계와 겨루며 해보자. 세계를 앞서 더 높이, 더 빨리 달려나가잔 말이야.》

나는 지연이를 점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 비껴들었던 절벽의 모습은 아지랑이마냥 사라졌습니다.

지연동무의 엄격한 요구성, 그것은 결코 나에 대한 트집도 놀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모두가 꿈과 희망의 억센 나래를 펼쳐 세계를 앞서 조국을 빛내이는 역군이 되자는 학습담당위원의 진정이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성적증에 강성조선의 미래가 비낀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하나를 배워도 조선을 위해, 한걸음을 걸어도 아버지원수님을 위해 공부해가자는 우리 학습담당위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지연이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나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빨리 날아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꼭!)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나에게 지연동무가 빨간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진국동무, 이걸 받아. 이걸 영어발음에서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을 정리한건데 도움이 될거야.》

한자한자 정히 쓴 그의 글자들이 정답게 확 - 안겨왔습니다.

나는 따끈하게 달아오른 눈빛으로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동무,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 나도 정말...》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야》를 편발하며 지연이를 시까스르던 내 입에서 오늘은 감동과 자책의 마음, 새로운 결의가 담긴 《정말》이 련달아 튀어나오고있었습니다.

《진국아, 넌 정말 좋겠다야. 학습담당위원을 잘 만나서 -》 결에서 용수가 빨간 수첩이 부러운듯 싱글거리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앤 정말? 아무렴, 그렇구말구. 우리 학습담당위원이 최고야, 최고!》

《하하하 -》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올랐습니다.

x

《야, 1등이다! - 나도 이제 5점, 만점 최우등생이다. 진짜 1등이다!》

방학이 끝나 첫 학과경연에서 6과목 30점 만점으로 나는 지연이랑 함께 1등을 했습니다.

1등, 그것은 바로 학습담당위원인 지연이가 우리 동무들모두에게 엄격히 요구한 학습목표였습니다. 우리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서야 할 앞자리였습니다.

나는 지지배배형제들이 날아에는 고향의 맑은 하늘가를 가슴벌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모두 어깨걸고 날아올라야 할 강성조선의 푸른 하늘이 끝간데없이 펼쳐져있었습니다.

(강반석고급중학교 문학반 학생)